

듣기 대본 (1번 ~ 30번)

※ [1~4]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1. 여자 : 와, 여기 전망 좀 보세요.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남자 : 확실히 여기가 높기는 하네요. 그리고 공기가 깨끗해서 그런지 저렇게 멀리에 있는 것도 잘 보여요.
여자 : _____

2. 여자 : 이 음악을 들으면 왠지 슬픈 느낌이 들어. 한 여자의 비극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다고나 할까?
남자 : 그래? 의외다. 나는 오히려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장면을 표현한 것 같은데.
여자 : _____

3. 남자 : 이미 공지한 것처럼 이 행사는 사전에 등록을 하신 분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객님의 저희 등록자 명단에 이름이 없으신데요.
여자 : 네? 그럴 리가요. 분명히 등록을 했는데요. 확인증도 출력해 왔어요.
남자 : _____

4. 여자 : 자, 이제 경기가 곧 시작될 텐데요. 김 위원님께서서는 오늘의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남자 : 네, 오늘이 결승전이니만큼 두 팀의 전력은 정말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노련미가 돋보이는 실업팀이나 패기로 무장한 대학팀이나, 승패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자 : _____

※ [5~7] 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5. (3점)

여자 : 아까 영수가 손을 데었을 때 보니까 너 정말 침착하더라. 나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겠던데.

남자 : 나도 마찬가지로였어. 친구 손에 끓는 물을 쏟았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갑자기 진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응급조치부터 한 거야.

6. (4점)

여자 : 소장님,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언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자 : 뭐, 투자에는 정답이 없겠지만 자신의 상황이나 인생 계획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투자 기간에 여유가 있는 젊은 층이라면 저축보다는 약간 공격적인 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겠고요. 은퇴를 앞두고 있어 미래 수입이 불확실한 경우라면 공격형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7. (4점)

여자 : 사진을 찍을 때 흔히 두 손가락으로 알파벳 ‘브이’ 자를 그리게 되는데요. 이 동작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칠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출전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승리라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인 ‘브이’ 자를 손가락으로 만들어 보인 것이지요. 원래 영국에는 손등을 앞으로 하는 다른 의미의 ‘브이’ 자가 있어서 처음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승리의 ‘브이’ 자가 더 유명해져서 널리 애용되고 있지요.

※ [8~10]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8. (3점)

남자 :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의견 하나하나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초석임을 알기에 여러분의 불만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을 모아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 ‘시청자 불만 처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과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의견은 물론 서비스 및 요금 제도에 대한 불만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힘, 시청자 여러분께 있습니다.

9. (3점)

여자 : 이 작품은 호랑이를 소재로 한 민화입니다. 호랑이 하면 보통 웅망하고 사나운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작품 속 호랑이의 얼굴은 아주 장난스러워 보입니다. 왜일까요? 예전에 한반도에는 많은 호랑이가 서식했었습니다. 또 호랑이를 신성시해서 함부로 잡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수는 계속 늘어났지요. 그래서 조상들은 호랑이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친근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를 예술 작품의 소재로 삼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민화 속의 호랑이가 지금처럼 짓궂은 얼굴로 웃게 된 거겠지요.

10. (4점)

여자 : 이게 세계 최대 길이의 다리라니 참 대단하네요. 다리를 만드는 데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남자 : 네,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엄청난 하중과 강한 바람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이었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의 견고함과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다리를 하나의 구조물이 아닌, 수십 개의 구조물로 만들어 서로 연결하는 공법을 생각해 내게 된 것입니다.

※ [11~13] 다음을 듣고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1. (3점)

남자 : 우리가 이런 저런 매체에 6개월도 넘게 광고를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아직 제품 이름도 잘 모르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자 : 지금 광고는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제품의 주요 구매층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너무 설명을 하려고 들지 말고 청소년들 구미에 맞게 더 감각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살렸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12. (4점)

여자 : 우리 사장님이 김 대리 병원비를 내 주셨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남자 : 네, 들었죠. 몽클하더라고요. 전 사장님이 참 구두쇠라고 생각했던 터라 좀 놀랍기도 했고요.

여자 : 뭐가 인색이고 뭐가 절약인지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세요. 종이 함부로 쓴다고 잔소리, 전원 안 뽑고 퇴근한다고 잔소리……. 그럴 때는 구두쇠도 그런 구두쇠가 없지만 직원들 챙기는 일에는 손이 보통 크신 게 아니잖아요. 모름지기 경영자는 그래야 돼요.

13. (3점)

여자 : 어느 교육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과도한 지식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요.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배우는 것이 많아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이것도 문제지만 저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식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별다른 노력 없이도 손쉽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의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탐구하고 지식을 발견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 [14~15]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각 4점)

14.

<대본>

- ① 여자 : 꽃을 좀 대량으로 주문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도 가능할까요?
남자 : 가능은 하지만 솔직히 도매시장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저희는 소매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거든요.
- ② 여자 : 꽃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어요.
남자 : 저희 전시장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특히 맨 앞에 진열된 화장품들을 보면 놀라세요.
- ③ 여자 : 꽃을 연구하신다고 해서 꽃 속에 파묻혀 사실 거라 생각했는데, 직접 와 보니 다른 실험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네요.
남자 : 네, 여기는 그렇지요. 품종을 연구하는 곳이니깐요.
- ④ 여자 : 여기에서 생산되는 꽃들은 대체로 수출이 된다면서요?
남자 : 네. 이웃 국가로 수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주 지역처럼 먼 곳까지 판매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5.

<대본>

① 남자 : 죄송합니다. 사진 촬영이 가능한 물건은 장내에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연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요.

여자 : 그러면 소지품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② 남자 : 가방이 굉장히 무겁네요. 혹시 객차 안으로 가지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수하물 보관대에 놓아 드릴까요?

여자 : 아, 수하물 보관대가 있어요?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③ 남자 : 보안 검색을 해야 하니까 가방을 검색대 위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머니 속의 물건도 꺼내 주십시오.

여자 : 금속성이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다 꺼내야 되나요?

④ 남자 : 죄송합니다만 본인 가방이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분께서 가방이 바뀐 것 같다고 하시네요.

여자 : 아, 그래요? 어, 정말이네요. 짐을 찾으면서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 [16~18] 대화가 끝난 후에 여자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6. (3점)

여자 : 교수님, 제 졸업 작품 주제 말인데요. 보니까 유사한 주제가 좀 있더라고요.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하지요?

남자 : 발표회를 준비하다 보면 주제나 소재가 겹치는 건 흔한 일이지. 물론 주제가 독창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제 와서 어찌겠어. 이미 진행 중인데. 일단은 그 주제 안에서 차별성을 두는데 주력하는 게 좋겠군.

여자 : 네. 노력은 해 보겠지만 생각처럼 잘될지 모르겠어요.

17. (3점)

여자 : 올해부터는 꼭 아침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번 계획도 또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제가 의지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남자 :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 드릴까요? 계획을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건 단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래요. 인간의 뇌가 가진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이라네요. 망각 현상과 비슷한 거지요. 그러니까 뇌가 목표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 : 그래요? 그럼 끊임없이 목표를 상기시켜 줘야 한다는 거네요. 저도 지금 당장 그렇게 해 봐야겠어요.

18. (4점)

남자 : 무료 전화 법률상담소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자 : 네,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정전이 되는 바람에 그날 영업을 못 했어요. 손실이 꽤 큰데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 : 정전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 소재를 밝히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개인의 힘으로는 소송이 힘들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소송에 참여할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수소문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최 우선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런 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정전의 원인이나 피해 정도, 또 보상 금액 등을 논의하시면 될 겁니다.
 여자 :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19~20] 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각 4점)

19. 남자 : 해외로 반출되었던 국보급 유물이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의 시련기를 거치면서 고국을 떠나야 했던 고려 상감청자 두 점. 이를 환수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기울인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고국을 떠나 있던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 그 은은하면서도 찬란한 푸른 빛은 그때와 다름없이 위풍당당해 보입니다. 이제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과 자랑으로 모두 앞에 그 자태를 선보일 날을 기다려 봅니다. 이상 KBC 뉴스 이현민입니다.

20. 여자 : 얼마 전 새 아파트로 이사를 온 김 모 씨. 집안에 앉아 있다 보면 눈이 따가워지는 증상을 느낍니다. 최근 김 모 씨와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원인은 바로 새집증후군입니다. 심한 경우 피부질환까지 유발하는 이 새집증후군은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원인입니다. 처음에는 환경오염 때문으로 생각되었던 각종 질환들이 새집증후군의 증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로서는 건축 내·외장재의 유해 물질 방출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시공사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BC 뉴스 조민영입니다.

※ [21~22]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남자 : 우리말에는 ‘눈이 보배다.’, ‘이는 오복 중의 하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만큼 눈이나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해 왔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코는 어떻습니까? 저는 코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코가 덜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코는 호흡 기능 외에도 공기 중의 먼지, 불순물, 각종 세균 등을 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인체를 보호하는 방어막과도 같은 것이지요. 코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코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코 건강을 위해 힘쓰는 사람도 없겠지요. 사실 코 건강과 관련해서는 그 흔한 영양제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그동안 간과되어 온 코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 들은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22. 남자가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 [23~24]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남자 : 아마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하필 장난감을 수집할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이제껏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질문입니다. 아직 수집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장난감 수집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장난감 수집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유아적 감상주의라는 말을 쓰더군요. 하지만 저는 유아적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장난감을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감은 그 시대 어린이들의 취향과 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감 속에 투영된 다양한 사회상과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2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4. 남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25~26]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여자 : 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한국자동차의 신차 ‘로드’가 오늘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박민수 팀장님, 오늘 신차발표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남자 : 네,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참 뿌듯했습니다.

여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남자 : 외관상의 변화를 기대하셨다면 그런 평가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드’는 운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스스로 맞춰 가는 인공지능형 운행 시스템을 탑재하는 데에 주력한 모델입니다. 지금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이러한 맞춤형 운행 시스템이 구현된 차량들이 선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로드’도 이런 세계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낸 것이지요.

25.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6. 남자의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27~28] 다음 대담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남자 : 국민 체육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이 수립된 지 어느새 5년이 경과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제반 시설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 결과 생활체육의 사각지대였던 도서 지방에서도 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자 : 네, 그렇군요. 정말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시설은 확충되었지만 이러한 시설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요. 물리적 환경 구축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민 참여를 독려할 방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8. 이 정책에 대한 여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29~30] 다음 토론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 : 네, 박사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되네요. 저도 인류의 안전을 동물의 생존권과 맞바꿀 수 없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고견을 들으면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인간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동물에게 무해하다면 인간에게도 무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전제에 대한 어떤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다면 동물실험을 거쳐서 탄생된 의약품들이 인간에게 무해하다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자 : 네, 물론 동물이 보이는 반응이 인체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과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연관성에 대한 자료를 보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29. 여자의 말 앞에 나온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점)

30. 여자의 생각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4점)